

지원법까지 만들었는데... 정부, 광주수영대회만 '어깃장'



국민정당 추진위원장인 천정배 무소속 의원이 19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 있다.

(국민정당추진위 제공)

국제대회 국비지원도 호남홀대

인천·대구 등 30% 이상씩 지원

반납뎠 213억원 시민혜세 날아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도 지역에 따라 차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한 총 소요 예산은 애초 대회운영비와 개최권료, 선수단 숙박비와 항공료 등 모두 1149억원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주경기장 후보 중 한 곳인 남부대 국제수영장 관공석을 세계수영연맹(FINA) 규정에 맞게 현재 3290석에서 1만5000석으로 늘리거나, 새로 임시 수조를 설치하는 데만 550억원이 소요되는 등 총 2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수영대회 예산이 이처럼 증가하긴 했지만,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나 인천 아시안게임 등과 비교하면 훨씬 적다.

대구 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경우 856억원에서 3572억원으로 무려 4배가 증가했으며, 인천 역시 9000억원 대에서 2조원 대로 늘어 광주 수영대회 증가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대회 개최 예산이 증가하면서 광주시가 정부에 지원 요청했던 예산도 당초 55억원에서 278억원으로 늘어났다. 광주시가 요청한 예산이 모두

반영된다 하더라도 이같은 지원액은 전체 사업비의 24.2%밖에 되지 않는다. 대구 육상선수권대회 전체 사업비 3572억원의 국비 비중은 1154억원으로, 32.3%에 달했다.

또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포함되지 않은 2013 총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경우도 전체사업비 975억원 중 30%인 300억원의 국비가 지원됐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 '공문서 위조 논란'을 문제 삼아 광주수영대회에 예산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문서 위조 논란이 해소된 뒤 여야 합의 아래 세계수영대회를 포함시킨 개정법이 제정됐는데도 정부가 사실상 '어깃장'을 놓는 셈이다.

특히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와 총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보다 참여 선수단 규모나 대회 기간 등에서 한참 뒤지는 것은 물론 인기도에서도 떨어진다. 접에서 정부가 광주 수영대회를 지나치게 홀대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시가 국제수영연맹에 지급한 비용은 계약금 22억원과 개최권료 54억원 등 총 76억원이며, 앞으로 36억원의 개최권료를 더 지급해야 한다. 사정이 이런 만큼 대회를 포기하면 위약금 55억원에, 지금까지 들어간 계약금과 개최권료, 그동안 쓴 유치활동비(38억원) 등 모두 213억원의 시민혜세를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결국 정부가 지원법에 대한 집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213억원의 부채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셈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천정배 “새정치 해체 준하는 변화 있어야”

박주선 “정치적 뇌물” 박준영 “호남민 우롱”

문재인 3톱 지도체제 제안 맹비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당내 분란 해법으로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 지도부 제안에 대해 당 밖 신당 추진세력들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을지라도 터져 나왔다.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19일 “새정치연합은 해체에 준하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당을 해산하고 새롭게 만드는 수준의 변화가 있기 전에는 다시 수권세력으로 거듭날 수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천 의원은 이날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표의 “문 대표가 나름대로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당을 살릴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 정도 처방으로 당이 새롭게 수권세력으로 거듭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이어 국립 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과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창당추진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중도개혁민생실용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서 “문안박 연대(제안)는 호남 민심에 대한 테러를 가한 것”이라며 “사퇴를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뇌물 공세”라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당권을 나눠주겠다는 것은 일종의 뇌물이고 혁신과는 동떨어진 것”이라며 “(문재인 대표가 사퇴하고) 비대위가 구성된다면 문안박 체제

도 검토될 수 있겠지만, 대표가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문안박을 구성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대표직에 연연하는 것은 친노 계파를 강화하기 위한 꼼수이며, 소위 말하는 제스처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가칭 신민당 창당을 추진중인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문재인 대표의 광주 발언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서 적절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는 이날 광주시청 기자회견을 열어 “호남민의 지지를 부탁하러 호남에 온 사람이 호남인을 배제한 채 특정지역 출신 인사만을 거론한 것은 호남민을 철저히 우롱하고 무시한 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지사는 또 “문 대표가 당을 비판하는 국회 의원에 대해 공전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매도를 했다”며 “호남 정치인 대부분이 비노(비 노무현), 비문(비 문재인)인데 이는 호남 정치인 모두를 매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표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호남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자괴감이 들 정도다”고 말했다.

박 전 지사는 “호남이 전국적으로 고립되고 있고 의지했던 당에서조차 배척당하고 있으며 패배주의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를 극복해야만 다시 일어서고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창당을 위해서는 5개 시·도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12월 중 창당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민하는 安, 속타는 文

새정치 3톱 지도체제 성사 촉각... 비주류 반발은 여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지난 18일 광주 방면에서 제안한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3톱 체제의 성사 여부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총사'의 출범 여부에 따라 새정치연합의 내분도 중대 기로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은 19일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공동지도체제 구상'에 대해 당의 혁신과 통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면서 문 대표에 힘을 실어줬다. 문 대표와 박 시장은 이날 서울시장에서 청년구직수당 도입에 대한 간담회 이후, 회동을 갖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 중단 없는 혁신과 통합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 대표 제안의 '키'를 쥐고 있는 안철수 전 대표는 확실한 입장 발표를 미루고 정교 모드에 돌입했다. 정치권에서는 24일로 예정된 부산 기자 간담회에서 안 전 대표가 입장을 밝힐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성곤 의원 등 당내 일부 중진 그룹은 3인 공동 체제 성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문 대표는 안 전 대표의 혁신안을 적극 수용하고 안 전 대표는 문 대표의 제안을 수락해 당내 혁신과 통합에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에는 주류 진영의 김성곤, 우윤근, 강기정 의원 등이 참여한 반면, 나머지 호남 중진들은 전원 서명을 외면,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특히, 비주류 진영에서의 '문·안·박' 공동지도체제'에 대한 반발이 여전하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 “문 대표가 실현 불가능한 해법을 제시해 혼란과 분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당내에서 국민전환용, 시간 벌기, 최고위 무력화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었던 문병호 의원이 교통방송에 출연,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표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반성하고 책임지는 자세 대신 비판자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안하무인, 독선적 태도를 보여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편, 다음 주 호남지역 새정치연합 국회의원들이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동을 가질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Recreation Machine] 코란도 스포츠

- 10년 자동차세 지원 (2015.01.01.~2024.12.31.)
- Safety 지리할부 선수율 ZERO / 1.9% 할부이자 / 36개월
- +2채널 블랙박스

[NEW POWER] 코란도 투리스모

전자식4WD / 변속 7단 미션 / LET2.2엔진

- 4WD 시스템 장착 50%지원
- Special 지리할부 선수율 ZERO / 1.9% 할부이자 / 36개월

“농칠수 없는 기회! 농치기 싫은 코란도!”

[통급 유익 2.2엔진] 코란도C LET 220

- Smart Value up 패키지 무상 지원 (1.1월 출시부터 12월 31일까지 한정 기간 한정 혜택)
- 동급 최대 5년/10만km 품질보증 프로그램
- 스마트 미러링 8인치 내비게이션 증정
- 개별소비세 인하 Double 혜택 유류비 50만원 지원
- Special 지리할부 선수율 ZERO / 1.9% 할부이자 / 36개월

구입 문의

| | | | | | | |
|---------------------|---------------|---------------|--------------|----------------|--------------|---------------|
| 광주권 : 광주중앙 529-0003 | 서광주 383-3434 | 광주광산 952-3330 | 북광주 971-0990 | 광주빛고을 655-4001 | 동광주 515-1900 | 광주양산 573-8900 |
| 전남권 : 순천중앙 723-7100 | 목포중앙 277-8000 | 순천 745-3666 | 여수 683-1800 | 목포하당 285-7576 | 화순 371-3555 | 장흥 863-2600 |
| (061) 나주 334-2727 | 영암 473-3456 | 강진 433-3100 | 해남 537-3100 | 장성 395-0007 | 담양 383-5811 | 영광 554-4545 |
| 영광 353-9500 | 보성 852-2892 | 광안 761-8900 | 동광양 791-0071 | 무안 454-0099 | 고흥 835-5050 | 진도 542-5888 |